

심석희, 3회 연속 올림픽 출전 불발

법원, 징계 가처분 신청 기각
국가대표 자격정지 2년 확정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5·서울시청)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연맹의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이 확정돼 오는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당초 심석희는 지난해 5월 2021-2022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해 1위로 태극 마크를 달았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에 이어 2022 베이징올림픽까지 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표팀 동료에 대한 욕설 및 비방 논란에 휩싸였다. 심석희는 평창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A 코치와 동료 및 코치에 대해 욕설과 비방 문자를 주고 받았다. 이 메시지들이 모 매체를 통해 지난해 10월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24·성남시청)을 평창올림픽 1000m 결승 당시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문자 내용도 있었다. 다만 연맹 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심석희 본인이 동료들에 대한 욕설과 비방은 인정했다.

이에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베이징올림픽 최종 명단 제출 기한에 걸려 사실상 출전이 무산된 것.



심석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이에 심석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요청해 마지막 길을 뚫으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징계가 확정됐다. /노컷뉴스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 코로나 우려에 입장권 판매 안하기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개막 5개월 전인 2017년 9월부터 온라인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대회라면 티켓 창구를 일찍 열고 흥행 열기를 고조시키는 게 보통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아래 개막을 준비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의 풍경은 이전 대회와 다를 수 없다. 베이징 대회 조직위원회는 작년 9월 해외 관중에게 티켓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관중 수용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베이징 대회 조직위원회는 개막을 18일 남겨둔 지난 17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마침내 입장권 판매 정책을 발표했다.

엄중하고 복잡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상

황을 고려해 일반인에게 티켓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특정 그룹의 관중에게 입장권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돈을 받지 않고 관중을 동원하겠다는 정책으로 입장권 수익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요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을 선별해 경기장 입장을 허락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구체적인 관중 규모와 선발 방식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이 같은 방향 설정은 지난해 여름 무관중으로 개최된 도쿄올림픽과 비슷해보이나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도쿄올림픽 당시 경기장 외곽의 풍경은 쓸쓸했다. TV 중계 카메라도 관중석 그림을

거의 잡지 않았다. 대회가 무관중으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 9300억원의 입장권 수입이 날아갔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입장권 수익을 포기해도 선수와 관중이 함께 호흡하는 그림만 큼은 어떻게든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TV 매체를 통해 올림픽을 시청하는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도쿄올림픽과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베이징 대회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는 관중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선수단과 관계자의 100%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올림픽 개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노컷뉴스

느린 공으로 101승…두산 유희관, 정든 그라운드 아듀

프로야구 마운드에서 '느림의 미학'을 선보였던 두산 베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유희관(36)이 정든 그라운드를 떠난다.

유희관은 18일 두산 구단에 현역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희관은 2009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6라운드 지명을 받고 두산 유니폼을 입은 뒤 은퇴할 때까지 '원클럽맨'으로 활동했다.

유희관은 KBO 리그에서 가장 느린 공을 던지는 투수로 유명했다. 시속 130km 중반대 직구로 펼치는 몸쪽 승부와 시속 120km 초반대 바깥쪽 싱커의 절묘한 배합으로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더불어 느린 공을 앞세우고도 매섭게 승수를 쌓아갔던 모습은 KBO 리그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유희관은 정규리그 통산 281경기(1410이닝)에 나서 101승 69패, 평균자책점은 4.58을 기록했다.

2013년부터 선발로 정착해 8시즌 연속 두자릿수 승수를 거뒀고 두산 좌완 최초로 통산 100승 고지에 오르는 금자탑을 세웠다.

유희관은 "오랜 고민 끝에 은퇴를 결정하게 됐다. 우선 좋은 때나 안 좋은 때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모든



팬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작년 시즌 뒤 많은 고민을 했다. 후배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물러나야 할 때라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후배들이 잘 성장해 베어스의 미래를 이끌어줬으면 한다. 비록 마운드는 내려왔지만 언제나 그라운드 밖에서 베어스를 응원하겠다"며 "야구를 통해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구단주님, 김태형 감독님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프런트, 동료들, 모든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손흥민이 선택한 레반도프스키, FIFA 올해의 선수상

손흥민(30, 토트넘 홋스퍼)의 선택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폴란드, 바이에른 뮌헨)였다.

국제축구연맹은 18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비대면 시상식을 열고 남자 올해의 선수상을 레반도프스키에게 안겼다. 레반도프스키는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파리 생제르맹), 무함마드 살라흐(이집트, 리버풀)를 제치고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품었다.

레반도프스키의 2021년도 압도적이었다. 독일 분테스리가에서만 43골을 터뜨려 1972년 게르트 뮐러의 42골을 넘어섰다.

FIFA 올해의 선수는 회원국 대표팀의 감독과 주장, 미디어, 팬 투표를 종합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FIFA에 따르면 레반도프스키는 감독과 주장, 미디어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팬 투표만 3위에 그쳤다. 최종 48점으로 메시(44점), 살라흐(39점)를 다돌렸다.

한국 주장으로 투표권을 가진 손흥민도 레반도프스



키에게 표를 던졌다.

손흥민은 메시에게 2위 표, 은골로 캠테(프랑스, 첼시)에게 3위 표를 행사했다.

올해의 여자 선수는 알렉시아 푸테야스(스페인, FC 바르셀로나)가 차지했다. /노컷뉴스

추신수, 유소년 야구선수 468명에 보은점퍼 기부

프로야구 SSG 베테랑 외야수 추신수(40)가 유소년 야구 선수를 위해 통 큰 지원을 했다.

SSG는 18일 "추신수가 지난 17일(월) SSG 공식 스폰서인 다이아핏과 함께 인천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 유소년 선수 468명에게 보은 점퍼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유소년 야구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추신수와 다이아핏이 SSG 선수단이 착용하는 보은 점퍼와 동일한 '다이아핏 레전더리 플리스 자켓'을 공동으로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68명 전원의 각자 사이즈에 맞춰 전달됐다.

이번 기부에 대해 추신수는 "이번 기부에 동참해 준 다이아핏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도 유소년 야구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생.명.돌.봄.

출산율 0.86명, 2028년 인구 절벽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CBS가 나섭니다.

·저출산 위기 대응 캠페인 전개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

·Happy Birth K 포럼 개최

·대한민국 생명돌봄대상 시상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교회캠퍼스 모집, 운영

CBS
LET'S PRAY
FOR THE
NEXT GENERATION



CBS아나운서_이지민
유투브 '아나운서 임미의 육아연구소' 제작, 진행